

‘CDC 3300에서 CYBER 72로’

-CYBER 72의 도입-

우치수

1. 개요

연구소에 입소하던 첫해인 1972년, 연구소 창설 때부터 사용해왔던 CDC 3300 시스템을 CYBER 72로 대체하기로 결정되었다. 당시 CYBER 72는 최신형 대형 시스템으로서 CDC가 자랑하는 기종이었다.

소속돼 있던 시스템실(변희성, 우치수, 천유식)은 지원 부서로서 주임무가 CDC 3300 운영 체제인 마스터(MASTER)와 시스템 유틸리티의 설치 및 갱신과 다른 연구실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상담이 주업무였다. 지원 부서였던 까닭에 다른 부서처럼 밤을 세워가며 프로젝트를 끝내는 일은 없었으며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으나, 시스템 자체가 CYBER 72로 통째로 바뀌게 되어 새로운 시스템의 설치와 시스템 대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하게 준비하게 되었다.

2. 배경

당시 연구소 전산실은 체신부의 전산화 업무가 가장 큰 프로젝트였으며, 전매청, 한국은행, 동아제약, 증권 거래소 등의 기업 자료 처리 개발팀과 토목 건축, 과학 예산, OCR, ATLAS

등의 공학 지원 팀이 있어 채규대, 이광세, 이대식, 안태백, 안문석, 김봉일, 김우영, 오길록, 황대규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멤버들이 각 팀장으로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고, 각 연구소에 입소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대학에서 배운 지식보다는 새로운 컴퓨터 기술과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면서 모두들 연구 수행에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모두들 새로운 연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밤 늦게까지,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지금은 우습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팀의 연구원의 구성이 다른 팀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과 연구에 대한 열정의 원천은 성 박사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들은 그때의 연구에 대한 열정을 거름삼아 지금 연구소, 기업체, 대학에서 우리나라 정보 산업의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3. 본론

73년 들어 CDC의 이덕순 씨와 팀장이었던 변희성 씨가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CDC 본사와 바텔연구소에 파견되어 SCOPE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팀장이었던 변희성 씨는 모든 일에 정말 열심이었던 분이다. 연구실의 옆자리에서, 기숙사의 룸메이트로서 내가 본 그의 연구 태도는 아직까지도 부러울 정도였다. 변희성의 귀국 후 동료였던 천유식 씨와 난 CYBER 시스템이 도착하기 전까지 변희성의 교육과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준비하였고, 또한 타연구실의 연구원과 신입소원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대비하였다. 그때 준비했던 교육 내용은 운영체제인 SCOPE, 어셈블리어 등 100% 내용이 바뀐 것과 COBOL, FORTRAN 등의 언어에서의 차이점, 그리고 새롭게 설치된 ALGOL, DB언어, OR, LP의 패키지 내용이었다. 그때 메뉴얼은 종류가 많고 부피가 커서 3명의 우리 팀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수시로 갱신되는 양도 우리를 힘들게 하였다. 교육할 양이 많아 6개월 정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교육을 위해 준비하였다. 어쨌든 우리 세 사람도 시스템을 설치하고 타부서에 대한

교육도 성공리에 마쳤다.

타부서에 대한 교육은 일과 시간에 행해졌고,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은 일과 후 7시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20대의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에 집에 가면 온몸이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이 들었다.

4. 결언

CYBER 시스템이 안정되던 73년 말 갑자기 상부로부터 ESS(TDX의 전신)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시스템실에서 맡게 되어 같이 일을 하던 천유식 씨가 ESS팀을 맡아 분가를 하게 되었고, 팀장이었던 변희성 씨는 유학 준비를 위해 팀을 떠났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유승화 씨와 퇴소하던 74년 말까지 함께 시스템실을 이끌어 나갔다.

그 당시 사용하던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치한 경험이 없었던 시대에, 같은 메이커에서 대치하였음에도 매우 힘든 업무였고, 각팀에서도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conversion에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은 74년 11월 말 울산대학 전산학과가 신설되어 정들었던 연구소를 떠나게 되었다. 당시 연구소 전산실에는 분명히 100명 이내의 연구원이 있었는데, 항상 400~500명이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왜일까?